

스마트폰 시장 AI 경쟁 격화… ‘성능·효율’ vs ‘사용자 경험’

〈삼성〉

〈애플〉

삼성 신규 AI 에이전트 추가 검토
고성능 AP 기반 온디바이스 강화

애플 시리, AI 기반 웹검색 추가
18시리즈 ‘A20칩’ 적용 가능성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업계 양강 구도를 이루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시리즈에 AI 기능을 강화하는 데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AI 기능을 중심으로 성능과 효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플은 AI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6 시리즈에 갤럭시 AI와 구글의 제미니AI 외에도 새로운 AI에이전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 많은 AI에이전트로 통합해 갤럭시 기기 전반의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AI를 핵심 기술로 내세우며 실시간 번역, 이미지 편집 등 온디바이스 AI를 차별화 요소로 강조해왔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향후 온디바이스 AI기술이 고도화되면 실시간 생성 번역, 음성·텍스트 변환, 사진·영상 편집 등 멀티모달 AI 기능을 스마트폰 단말에서 직접 구현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애플 또한 내년 AI집사 서비스 ‘시리’에 구글 제미니AI 모델을 적용해 AI 기반 웹 검색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에 맞춤형 제미니AI 모델을 의뢰해 자사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I음성비서 시장에서 애플은 기술력 측면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구글 제미니AI가 시리에 적용된다면 아이폰의 AI 성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구글 제미니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검색기능 등을 통해 구글 서비스와의 연동이 강화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될 모바일프로세서(AP)를 통한 기술 경쟁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S26시리즈에 2나노미터(nm) 공정으로 제조하는 자체 AP인 엑시노스2600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엑시노스2600은 AI 연산을 담당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벤치마크 기준 수치로 엑시노스2600은 싱글코어 3309점, 멀티코어 1만1256



지난달 서울의 한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7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퀄컴의 차세대 주력 칩인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 대비 CPU 멀티코어 성능이 약 14% 더 높은 수준이다.

애플은 내년 공개되는 아이폰18에 2나노 공정 기반의 새로운 A20칩을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A20칩이 이전 세대인 A19 대비 성능이 15% 빠르고 전력 소모가 30%났을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AI 경쟁이 스마트폰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9%로 애플(18%)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개 분

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으며 지난 7월 갤럭시Z플립과 폴드 등 신제품 효과와 AI 기반 경쟁력 강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는 호조를 보였으나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가 기대만큼의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은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AI가 사용자의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개인 맞춤형 경험을 중심으로 AI 기술 혁신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정제마진 회복세… 정유업계, 실적개선 속도

국제 복합 정제마진 13달러선 회복
정유사, 친환경 중심 체질개선 나서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배럴당 4~5달러)을 크게 웃도는 13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정유사들이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업계는 이번 회복세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친환경 연료·배터리 중심의 체질 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상반기의 깊은 부진을 털어내고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5332억원, 영업이익 57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233억원 적자에서 1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에쓰오일은 매출 8조4154억원, 영업이익 2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고, HD현대오일뱅크도 매출 7조3285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오는 7일 실적을 공개하는 GS칼텍스 3분기 매출은 약 10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175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이다.

이번 실적 개선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국제 복합 정제마진의 급등이다. 지난달 둘째 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3.1달러(약 1만8700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2월(14.1달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손익분기점(4~5달러)을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구입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유



에쓰오일 울산공장

/에쓰오일

사의 수익성을 가능하는 핵심 지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기 둔화 여파로 정제마진이 5달러 안팎에 머물며 정유사들의 실적이 부진했다. 실제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총 1조351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3분기 들어 글로벌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한 이후 러시아의 일일 정제 처리량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인 500만배럴로 떨어졌다. 이는 계절 평균 대비 7% 이상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세브런 정유공장 화재로 현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공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수요 측면에서도 정제마진 상승 요인이 겹쳤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용 연료와 항공유, 윤활유 등 주요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항공유의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정유업계는 이번 정제마진 호조를 단기 실적 회복의 ‘끝’이 아닌 구조 전환

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사업에서 확보한 이익을 배터리·소재 투자로 돌리고 있고, S-Oil은 울산 석유화학 복합시설인 ‘샤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GS칼텍스는 바이오연료·수소 혼합연료 등 저탄소 연료사업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며, HD현대오일뱅크도 탄소포집(CCUS) 기술 도입과 친환경 윤활기유 생산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회복된 지금이 탈(脫)탄소 시대 대응 투자에 속도를 낼 적기”라며 “정유 4사의 실적 반등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윤재성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정유사 재고평가손실이 불가피해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김영섭 대표, 연임 포기… 후임 선임절차 착수

KT 이사회

전 가입자 대상 유심 무료 교체 결정

김영섭 KT 대표(사진)가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 KT는 고객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시행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열린 KT 이사회에서 연임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이사회는 즉시 후임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KT 차기 CEO는 이사회 산하 이사회보추천위원회가 사내의 인사를 심사·추



천하고,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공개모집은 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날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유심 무료 교체도 결정했다. KT는 5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고객은 홈페이지 또는 전담센터(080-594-0114)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는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seoh@

LG엔솔, 캐나다 합작공장 ESS 생산 확대

북미 ESS 시장 공급 역량 강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캐나다에 세운 합작공장이 급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며 생산 체계 재편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 합작법인 넥스트스타에너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공장 내 일부 자동차 전지 라인을 ESS용 전지 라인으로 전환해 연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이로써 넥스트스타에너지는 LFP와 NC 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게 됐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안정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전기차 시장 둔화를 상쇄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생산 조정을 통해 급성장 중인 북미 ESS 시장에 대한 공급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미국 미시간주 플랜드 공장을 LFP 기반 ESS 생산 기지로 전환하며 현지에서 가장 선제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캐나다 공장 라인 전환은 이러한 리밸런싱 전략의 연장선으로, 생산 효율화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관희 기자 wkh@